이안의 Media In Buddha 23 드라마 〈연인〉



▶한줄 요약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 속에서 백성들의 끈질긴 생존 서사와 사랑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됐다.

전쟁 속 '삶의 가치'를 되짚다

조선시대에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큰 전란으로는 왜란과 호란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었던 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였고, 이 전쟁에서 우리 역사는 왕이 아니라 두 지도자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한다. 성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순신 장군과 승려로서 의승도대장이라는 공직을 맡아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고 전후 수습에도 외교관으로서 활약한 사명당 유정 스님.

그런데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나라였다.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국가에서 발행한 도첩이라는 증서 받아야 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도첩제가 폐지되었으니 도첩을 받은 정식 승려도, 제대로 국가로부터 관직을 받은 승려도 사명당이 마지막이다. 그렇다고 승려가 사라진 것도, 절이 없어진 것도, 불교에 대한 민중의 믿음이 싹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승려는 있었고, 절도 있었다.

조선의 왕과 관료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그 전쟁의 여파로 명나라가 청나라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허황되고 모자란 꼴을 보이다 1627년에는 결국 또 침략을 받게 되었다. 명나라를 꺾은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을 겪고도 갈팡질팡하다가 1636년에 더 강성해진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도록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벗지 못하고 병자호란까지 겪었다.

그리고 왜란과 달리 호란에서는 영웅도 없었고, 승전보도 없었다. 왕과 관료들은 남한산성으로 달아났다가 겨우 한 달만에 청 태종에게 왕인 인조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항복을 했으니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굴욕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고도 조선은 망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에서 그토록 승병의 덕을 보고도 도첩제를 폐지한 왕과 관료들이 농성하던 남한산성에는 여전히 절도 있고 승병도 있었다. 도첩을 내리지 않았는데 승려가 있는 까닭은 조정은 돈 한 푼, 사람 하나 들이지 않고 그 성을 쌓고 관리하고 지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승병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지위를 보장할 제도조차 없애놓고 불교를 더 쥐어짜는 탄압을 하다가 막상 호적에게 쫓기자 또다시 남한산성에서 승려들을 방패삼으려 했으니 참 못난 조정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도첩도 받지 않아 사실은 불법 신분인 남한산성의 승려들을 나라를 지킬 기적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호국으로 이름 높아 온갖 전설을 만들어 낸 사명 대사처럼.

패전의 책임은 조정에 있었으나 그 피해와 고통은 모든 백성이 감당해야했다. MBC 드라마 〈연인〉은 이런 패전국 조선에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감당해야 했는지를 상상한다. 〈최종병기 활〉(2011년, 김한민 감독)이나 〈남한산성〉(2017년, 황동혁 감독) 같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드라마는 더 긴 호흡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굴곡진 인연을 만들어낸다.



드라마 〈연인〉의 한 장면. 병자호란 속에서 백성들의 끈질긴 생존 서사와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왜란 끝나고 태어났을 양반집 애기씨 길채(안은진)는 짝사랑하는 도령에게는 연모를, 자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선비 장현(남궁민)에게는 새침을 내보이는 청춘이다. 양반집 애기씨니 먹고 자고 입는 것 걱정할 형편도 아니고, 전쟁도 끝난 시기니 세상 불안할 것도 없는 상황인 줄 알았으니, 짝사랑하는 도령이 친구랑 혼약한 사이라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을 나이였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겨우 한 달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적을 막으려다 죽고, 장정들 없이 노인과 어린이와 여성만 남은 마을은 청나라 군대의 노략질 앞에서 털리고 밟혔다. 그리고 적국에 인질로 끌려갔다. 왕실 사람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만 인질로 간 것이 아니라 50만에서 60만 명을 헤아리는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을 책임져야할 관료들이나 군사로 나섰던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까지 끌고 간 것은 청나라의 침략 목적이 단순히 명분과 화친이 아니라 '재물과 여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 이 여자들이 인질이 되어 정절을 잃게 된들 그 책임은 전쟁이 벌어질 상황을 만들고, 제 나라 백성보다 사대하는 명나라를 지키겠다고 외교적으로 자충수를 두고, 이미 벌어진 전쟁에서는 이기는 길이나 명예롭게 죽는 길보다 굴욕을 겪고도 살아남아서 백성으로 정권 유지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한 국가에게 있다.

병자호란 포로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
다시 귀환해도 돌아온 건 멸시와 박해
길채를 마지막까지 지킨 건 장현의 순애
'화중생연' 같은 주인공들의 모습 '애잔'

그러나 여성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리라고 믿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럽혀진 몸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적의 손길이 닿기 전에 바다에 몸을 던지고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이토록 여성들을 몰아붙인 것은 살아 돌아가서 감당할 치욕이 적의 손길보다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 길채는 피란길에서 다른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때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시장까지 팔려가고서도 돌아온다.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돌아올 길은 어떻게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다. 액수가 크더라도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속환비'를 내면 살려낼 수 있었지만 사내가 아닌 여성은 속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여성에게만큼은 치욕이 되는 조선에서 남성들은 돌아온 여성들을 버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게 만들었으니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살아 돌아왔으니 반가워하는 것이 가족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절을 잃었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집안 망신이 되지 말라며 자결을 강요하는 것을 이미 병자호란 전에, 임진왜란을 겪었던 조선의 여성들을 알고 있었다.

장현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목숨을 놓아야 했던 비극을 겪은 업을 지고 산 청년이었다. 그 업을 끊는 것이 세상을 온당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큰 화두라는 것을 어머니를 잃으며 알게 된 그 청년은 다른 조선 사내들과 달랐다. 길채가 짝사랑하던 연준이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구하자고 나설 때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하느냐고 어깃장을 놓는다.

대신 장현은 사랑과 자비로 연인을 지키고, 싸우고, 구한다. 첫사랑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길채가 오랑캐에게 쫓겨 칼날 앞에 서게 될 때, 사냥놀이 내몰려 화살받이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길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새장가 들어 새살림 차리고 살다가 적국에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에 돌아온 아내에게 정절을 지켰는지 묻을 때, 길채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욕받이가 된 상황에서 잠자리에 든 딸을 목 졸라 죽이려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조선 사대부들이 명분이라며 갖다 붙이는 정절을 거부하고 먼저 이혼을 선언할 때, 장현은 길채를 지지한다.

사실 너무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도 많았지만 강하게 버티어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내들은 이 여성들에게 이혼이나 죽음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인조는 속환된 부인과 이혼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어찌나 사내들이 정절 타령을 해대며 반발을 했던지 다음 대 왕위를 이은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이혼을 허용했다. 길채의 이혼 선언도, 길채의 곁에 선 장현의 지지도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일지도 모른다. 사명대사가 이적을 보이며 왜군을 겁에 떨게 했다던 일화처럼. 그러나 사실로 기록된 진실도 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오대산 월정사의 주지 정념 스님은 "실록을 보관하는 오대산 사고가 1606년 조선 조정의 명령으로 산중에 지어질 때 건물터 자리는 사명당이 수행하던 거처"라며 "오대산 사고본이 원래 보관됐던 자리인 월정사로 돌아오게 된 건 사명당의 호국정신과 호국을 위한 행적들이 지금 시대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 외교사절로 가서 도쿠가와와 담판해서 납치 조선인 3000여 명을 무사히 귀국시켰던 사명당 스님이 이후 수행하며 머물던 장소가 왕조실록이 보관된 사고 건물 터 부근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 조정이 외적의 침입에 안전한 실록의 보관처를 찾기 위해 나라 안 심산유곡을 수소문할 때 사명 대사가 수년 동안 은거하며 수행했던 오대산을 길지라고 적극 추천을 해서 서고가 들어서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절에 전해져 왔다고 한다.

월정사는 그 뒤 주지가 유사시 승병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의 밀부를 지난 수호총섭이 되어 300년간 실록의 관리 책임을 맡았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이 찬탈해갔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되찾아왔고,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견인해 실록과 의궤를 환지본처했다. 이 과정을 정념 스님은 "'화중생연'이란 불가의 게송을 지침 삼아 이끌어 왔다"고 했다. '화중생연'은 불꽃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다는 뜻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수행되고 단련돼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실록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여성들도 연꽃처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못난 조선은 이제 없다. 남한산성에 주춧돌을 놓았던 승려들과 살아 돌아와 스스로 연꽃이 된 여성들에게 드라마 〈연인〉은 왕조 중심의 전쟁사보다는 가치있는 삶을 이야기 하는 사극으로 기억될 것이다.

〈영화평론가〉

일일시호일

헛디딘 발끝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진 고향 생각

추석날 가파른 계단서 실족…두개골 · 허리 골절에 중환자실
밀린 병원비 3000만원…"수술 불가피" 권고에도 엄두 못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